

6 문화·스포츠

아포짓 스파이커 염시원의 마지막 각오

“후회없이 때린다”…올해는 플레이오프 목표

이환희 기자 hwanhee515@kn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여덟 번째 주인공으로, 배구부의 새로운 주장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배구부 유일의 23학번’ 위기 넘기고 주장까지

“여전히 배구가 너무 재밌다”는 염시원 선수는 남들보다 늦은 중학교 1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다. KBS 예능 ‘우리동네 예체능’을 보고 배구를 해보고 싶었던 순간, “키가 180이니 한번 해보자”는 선생님의 권유로 배구를 시작했다. 염 선수에게 배구는 ‘처음으로 좋아서 시작해 열심히 했던 것’이었다.

대학 새내기 시절에는 한 세트를 온전히 뛴 적이 없었을 정도로 기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끝



염 선수는 “작년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플레이오프에 갔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올해는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여름 이후에도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염 선수 제공)

내자”는 생각에 남은 힘을 쥐어짰다. 함께 입학한 동기 넷이 다른 진로를 찾아 곁을 떠났을 때도 염 선수는 배구부에 남았다. ‘프로선수 못 될 수도 있으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빨리 공부해서 자격증 이라도 따라’는 등 주변의 우려에도 염 선수는 끊임없이 배구부의 유일한 23학번 선수로서 경기를 뛰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기량은 대학 입학 이후 최고였다. 염 선수는 U-

리그 6경기에서 104득점을 올렸다. 중부대전에서는 혼자서 37득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마친 후, 지난해 9월엔 자연스레 주장이 됐다. 염 선수는 “주장이 된 이후엔 체력 운동을 하면 무조건 1등으로 달린다”며 “예전엔 그냥 제일 먼저 들어와 운동을 마쳤는데 지금은 못 뛰는 선수가 보이면 뒤에서 밀어주고 혼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잡은 주전 자리 안심할 순 없다

주장은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다. 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온다. 염 선수는 주전 선수가 됐음에도 “솔직히 안도감은 없다”며 “언제든지 실력이 부족하면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자신과 같은 포지션에 기량이 남다른 신입생이 들어온 것을 보며 배구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염 선수가 맡고 있는 ‘아포짓 스파이커’ 포지션은 공격에 치중하는 역할이다. 고등학교 때 소심한 플레이가 단점이었다는 염 선수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경기해선 바뀌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 없이 과감하게 공을 때리다 보니 드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리그로 향하게 된다면 어려운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염 선수가 뛰는 아포짓 스파이커 포지션은 키 190cm 이상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외국인 선수들이 주로 차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염 선수는 서브 능력을 자신만의 특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는 ‘원 포인트 서버’ 역할로 어필하기

위해서다.

한 끗 차이로 줄줄이 탈락 고배
“올해는 후회 없이 쓸어부을 것”

개인적으로 주전 선수로 도약한 해였지만, 배구부에게는 U-리그, 고성대회, 단양대회까지 모두 조별리그에서 한 끗 차이로 탈락한 절은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U-리그 A조에서 중부대, 성균관대와 같은 4승 2패를 기록했지만 승점에서 밀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다. 조별리그에서 꺾었던 중부대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점도 배구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로 작용했다. 염 선수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플레이오프에 갔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올해는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여름 이후에도 경기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4학년이 되지만 프로 드래프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염 선수는 자신을 “나는 1학년 때 운동을 그만뒀다면 드래프트장까지도 못 갔을 선수”라고 표현하며 “시합을 뛰고, 드래프트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만으로도 좋다”는 말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 대학 마지막 시즌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았다. 염 선수는 “최근 훈련 중 김홍정 코치님께서 ‘지는 게 너무 싫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그렇다”며 “당장 우승을 하겠다는 건 너무 면 얘기인 것 같고,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임하면서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조화된 ‘인간중심사회’

김희찬(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⑦ 『서울캠퍼스 경희의 탑』

경희대 정문에서 교시탑을 지나 간호·이과대학 앞에 다다르면 거대한 ‘경희의 탑’을 볼 수 있다. 이 탑은 일명 ‘밝은사회 탑’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수·직원·동문·기타 성금으로 1979년 5월 18일에 완공되었다. 탑의 규모는 높이 25m, 기단 높이 1m, 기단 너비 20m로 돼 있고, 그 형태는 2개의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전한 인류사회’,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지향하는 밝은사회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이다. 각각의 탑신 중앙에는 수직선이 표현돼



①‘경희의 탑’ 제막식 광경(1979.5.18) ②탑신 외측면에 새겨진 그림문자 ③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인간중심문화’의 창조(자연사박물관 벽면에 그려진 ‘우주·생명 그리고 문명’ 벽화 중 발췌)

있는데, 이것은 끝없는 이상을 향해 발돋움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는 신념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탑신부 전·후면에는 각각 ‘잘살기운동’, ‘밝은사회운동’이란 높쇠로 된 황금색 글자가 부착돼 있다.

두 탑신의 외측면에는 밝은사회운동 배지 아래 각각 15자×3줄 45자로 된 ‘잘살기운동’과 ‘밝은사회운동’의 강령을 그림문자로 새겨 놓았다. 이 글자는 당시 사범대학(현 미술대학) 양규희(楊奎熙) 교수의 디자인한 것으로, 문자의 도안은 무궁화를 비롯해 인간, 적십자, 월계수 등 수많은 사물을 수놓듯이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문자는 잘살기운동과 밝은사회운동의 현장 및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을 보고 살아가자 来日(내일) 위해 살아가자 創意(창의)로 길을 열고 노력으로 살림 세워 내 祖國(조국) 繁榮(번영) 위해 모두 함께 나서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보람을 찾는 밝은 社會(사회) 운동으로

새 역사(역사) 創造(창조)하면서 健全氣風(건전기풍) 人間福利(인간복리) 世界平和(세계평화) 이룩하자’

또한 두 탑신은 높이 7~8m 부근에서 둑근 모양을 그리며 조각된 12마리 사슴이 중앙의 구형으로 된 밝은사회운동의 배지를 향해 달리는 모습으로 연결돼 있다. 사슴은 순박하고 성실함을 상징하고, 12마리의 사슴은 12개월을 의미한다. 이 디자인은 연중 순박하고 성실하게 밝은 사회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경희의 탑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암울하고 불균형적인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즉, 현대 문명은 물질 속 배와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인해 인간 자신이 창조한 모든 문명에서 밀려나 오히려 인간이 부재하는 과학기술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간중심의 정신문명을 더욱 고양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진정한 인간중심의 ‘문화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